# 경제포커스

## 청계천 복원사업 이후 도심산업의 동향과 전망 II

정병순(서울시정개발연구원 산업경제센터 연구위원)

## 종로 귀금속·보석 클러스터의 재발견

박래현(서울시정개발연구원 산업경제센터 연구원)

# 종로 귀금속·보석 클러스터의 재발견

박래현*
서울시정개발연구원 산업경제센터 연구원
geohyun@sdi.re.kr

## Ⅰ. 왜 종로 귀금속·보석 클러스터에 주목해야 하는가?

종묘에서 종로3가에 이르는 대로변을 걷다보면 끝없이 늘어서있는 귀금속·보석 도소매점을 만날 수 있는데, 이들은 차량과 인파로 붐비는 거리, 극장, 쇼핑몰, 각종 상점들과 어우러지면서 도심의 활력 넘치는 경관을 만들어내고 있다. 특히 봉익동과 묘동 일대에는 한 건물에 귀금속·보석 도소매점이 서너 곳이나 빼곡히 들어선 모습을 어렵지 않게 찾아볼 수 있어, 귀금속·보석거리로 손색이 없는 집적 경관을 연출하고 있다. 통계자료에 의하면 현재 종로구 봉익동, 묘동, 예지동 일대에 자리 잡은 귀금속·보석 업체의 수는 무려 2,500(2003년 기준)여개에 이르고 있는데, 이러한 규모는 이곳이 서울을 넘어선 전국적인 귀금속·보석산업 중심지로 자리매김하고 있음을 알려주고 있다.

집적의 규모와 더불어 종로 귀금속·보석거리에 관심을 갖는 중요한 이유는, 바로 종로의 귀금속·보석산업이 소매기능과 더불어 도매, 가공 및 세공, 그리고 디자인기능이 복합적으로 나타나는 클러스터의 형태를 띠고 있기 때문이다(주성재, 2004). 이는 공간적으로도 확인이 가능한데, 종로 대로변을 중심으로 한 소비·유통공간과 대로변 안쪽 골목길 사이사이에 자리 잡고 있는 다수의 소규모 생산공간이 병존하는 양상

* 저자 학력, 경력 및 최근 연구:
- 경희대학교 지리학과 석사
- 서울시 디지털컨텐츠 산업클러스터 발전방안(연구진), 서울시정개발연구원, 2005
- 서울시 제화산업의 집적 특성 및 혁신환경 분석, 대한지리학회지 Vol.40(6), 2005
- 대도시 사업서비스업클러스터의 공간적 특성에 관한 연구(공동), 한국경제지리학회지 Vol.8(2), 2005

을 보이고 있으며, 상호 밀접한 거래·협력관계에 놓인 생산, 도소매업체들이 이 지역을 중심으로 공간적 집중을 이루고 있다. 즉 귀금속·보석산업이 갖는 기획-생산-유통-소비의 가치체인(value chain)상 전 과정이 종로 귀금속·보석 클러스터의 울타리 안에서 집약적으로 발생하고 있으며, 이를 기반으로 집적지의 성장이 견인되고 있는 것이다.

그렇다면 이처럼 '규모의 경제(economics of scale)'와 '집적의 경제(economics of agglomeration)' 발생을 위한 제반 여건을 이미 향유하고 있는 이 클러스터가 갖는 산업적 경쟁력은 어떠할까? 기대와는 달리, 큰 잠재력에 비해 경쟁력은 아직 낮은 단계에 머무르고 있는 것으로 밝혀지고 있을 뿐만 아니라(정병순, 2005; 이수연, 2003), 오히려 최근 들어 클러스터 활력이 급격히 떨어지는 양상을 보이고 있다. 숙련된 기술자들이 지역을 떠나고 있을 뿐만 아니라 많은 업체들이 경영상의 어려움을 호소하거나 문을 닫고 있으며, 디자인은 단순모방의 수준에 머물러 있어 고부가가치의 창출을 가로막고 있다. 제도적으로는 공해유발산업으로 지목되거나 오랜 기간 탈세의 사각지대로 인식되어 오랫동안 억제와 규제의 대상이 되어 왔다.

그러나 최근 종로 귀금속·보석 클러스터가 지니는 잠재력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으며, 무엇보다 청계천 복원과 더불어 도심지역의 본격적인 재개발이 예고되어 있어 클러스터를 둘러싼 여건에 긍정적 변화가 발생하고 있다. 이에 지금은, 대표적인 도심형산업이자 서울 도심에서 자생적으로 형성·성장해온 종로 귀금속·보석거리의 가치를 재발견하고, 잠재력을 실질적인 클러스터 발전으로 이어 가기 위한 전략적 접근이 요구되는 시점이라 하겠다.

## II. 종로 귀금속·보석 클러스터 현황과 잠재력

귀금속과 보석 소매상, 즉 소위 우리가 금은방이라고 부르는 도시 상업기능은 전통적으로 도시계층을 파악하는 중심성(centrality) 측정의 지표로 사용되어 왔으며, 도심에서 높은 입지지대(location rent)를 감당할 수 있는 부가가치를 창출하는 기능으로 인식되어 왔다(주성재, 2004). 여기에 생산기능을 더한 귀금속·보석산업의 경우, 문화적 활력을 자양분으로 성장할 뿐만 아니라, 유행의 흐름에 민감하게 반응하며, 높은 구매력을 지닌 시장과의 근접성이 요구되는 산업으로, 유행·소비·문화의 중심지인 도시, 특히 도심에 입지하는 경향이 강한 산업이다. 또한 생산에 수반되는 시설규

모가 크지 않고, 다른 제조업에 비해 소음이나 대기오염 등이 비교적 적다는 것은 동 산업이 도심의 환경오염과 공간부족 문제에 크게 제약받지 않게 함으로써 대표적인 도심형 산업으로 자리 잡게 하는 주요한 요인이 되고 있다. 더욱이 최근 지식경제의 도래와 맞물려, 동 산업을 창조적 지식기반 산업이자 고부가가치를 창출할 수 있는 문화산업의 영역으로 받아들이는 인식의 전환이 이뤄지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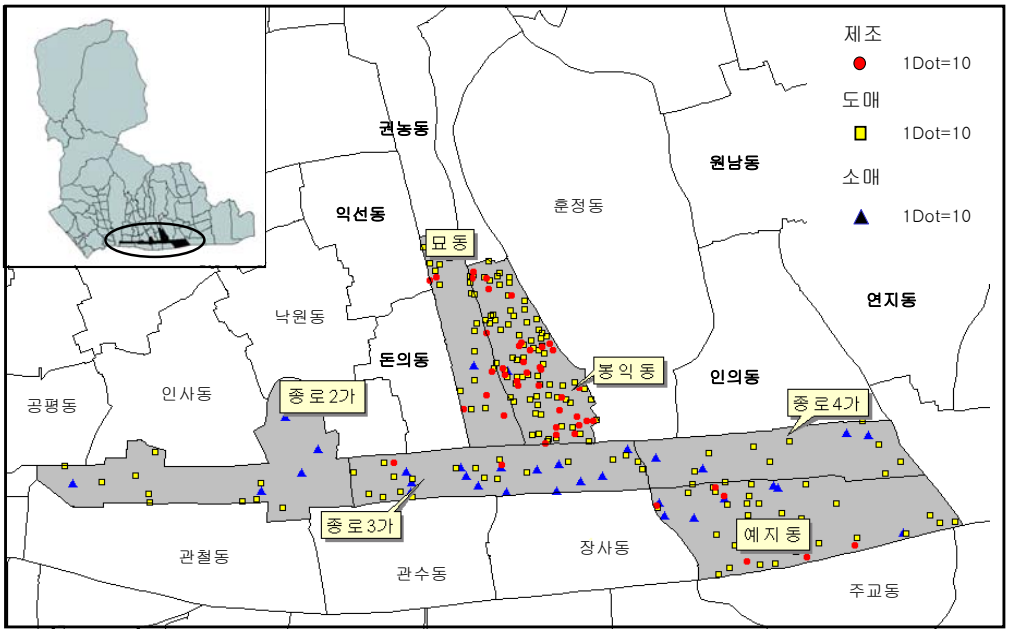
여기에 더해 종로 귀금속·보석 클러스터가 갖는 주요한 강점 중 하나는 세계적으로 유례를 찾아볼 수 없는 대규모 집적지역이라는 것이다. 특히 귀금속·보석 상설 도매시장으로 이 정도의 규모로 밀집된 지역은 종로 지역이 유일하다 할 수 있다. 앞서 밝힌 대로, 종로구 종로1~4가동, 봉익동, 묘동, 예지동을 중심으로 모두 2,500여개의 관련 업체가 밀집해 있는데(<표 1> 참조), 여기에는 생산을 겸하는 도매업체, 소매업체를 포함한 다양한 형태의 업체들이 공존하고 있다. 유사·동종업체의 물리적 집중이 집적경제 발생의 기반이 된다는 점을 고려한다면, 종로 귀금속·보석 클러스터의 규모와 높은 집적성은 클러스터 성장을 기대케 하는 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을 것이다.

한편 다지역 투입산출모형(multi-region input-output model, MRIO 모델)을 이용하여 귀금속·보석산업의 정책투자에 따른 경제적 파급효과를 분석한 결과, 동 산업의 서울시 정책투자 효과는 10,918백만원, 부가가치효과는 4,342백만원, 고용창출효과는 2,262명에 달할 것으로 예상되어, 향후 동 산업이 종로구 경제를 주도할 수 있는 잠재력을 지닌 것으로 예상할 수 있다(정병순, 2005).

<표 1> 종로 귀금속·보석 클러스터의 사업체, 종사자 현황(2003)

| 구 분 | | 귀금속·보석 제조 | | 귀금속·보석 도매 | | 귀금속·보석 소매 | | 기타 | | 계 | |
|---|---|---|---|---|---|---|---|---|---|---|---|
| | | 규모 (개, 명) | 비율 (%) | 규모 (개, 명) | 비율 (%) | 규모 (개, 명) | 비율 (%) | 규모 (개, 명) | 비율 (%) | 규모 (개, 명) | 비율 (%) |
| 사업체 | 종로 1~4가 | 25 | 5.5 | 387 | 23.5 | 248 | 71.7 | - | 0.0 | 660 | 26.5 |
| | 묘동 | 56 | 12.2 | 166 | 10.1 | 9 | 2.6 | 2 | 5.4 | 233 | 9.4 |
| | 봉익동 | 308 | 67.2 | 752 | 45.7 | 8 | 2.3 | 23 | 62.2 | 1,091 | 43.9 |
| | 예지동 | 69 | 15.1 | 340 | 20.7 | 81 | 23.4 | 12 | 32.4 | 502 | 20.2 |
| | 합계 | 458 | 100.0 | 1,645 | 100.0 | 346 | 100.0 | 37 | 100.0 | 2,486 | 100.0 |
| 종사자 | 종로 1~4가 | 87 | 6.7 | 768 | 21.5 | 410 | 74.0 | - | - | 1,265 | 23.0 |
| | 묘동 | 220 | 16.8 | 372 | 10.4 | 15 | 2.7 | 5 | 8.1 | 612 | 11.1 |
| | 봉익동 | 879 | 67.2 | 1,887 | 52.9 | 14 | 2.5 | 44 | 71.0 | 2,824 | 51.4 |
| | 예지동 | 122 | 9.3 | 542 | 15.2 | 115 | 20.8 | 13 | 21.0 | 792 | 14.4 |
| | 합계 | 1,308 | 100.0 | 3,569 | 100.0 | 554 | 100.0 | 62 | 100.0 | 5,493 | 100.0 |

자료: 통계청, 사업체기초통계조사보고서, 각 년도,




〈그림 1〉 종로 귀금속·보석 클러스터의 지리적 범위와 사업체 분포 현황

## Ⅲ. 모여 있기는 하되 혁신은 없는 클러스터

앞 절에서 논의된 외양적인 잠재력과는 별도로, 이러한 잠재력이 실질적인 클러스터 내 혁신 발생과 경쟁력 강화로 이어지는 구조를 지니고 있는가, 즉 클러스터의 질적 특성은 무엇인지 살펴보면, 상황은 달라진다. 선행 연구결과들에 의하면, 현재 종로 귀금속·보석 클러스터는 업체들을 끌어들이는 힘은 있지만, 그것은 단순히 업체들이 모여 있는 단순집적지에 머물고 있는 판단이 가능하다. 노동시장이 형성되어 있으며 업체 간에 정보와 기술교환과 같은 협력이 이루어지고는 있지만, 이것은 매우 약한 강도로 비공식적인 형태로 나타나고 있다. 클러스터를 둘러싼 여건에 있어서도 열악한 물리적 환경과 생산 공간의 부족, 기업의 영세함, 억제와 규제 중심의 제도 등이 클러스터의 질적 성장을 가로막는 요인이 되고 있다(정병순, 2005; 주성재, 2004; 이수연, 2003).이상의 문제의식을 통해 동 클러스터가 지닌 한계점을 보다 구체화하면 다음과 같다.

① 가버넌스(governance)의 부재

현재 클러스터의 중장기적 발전을 선도해 갈 수 있는 가버넌스(governance)의 형성이 부재하다. 클러스터가 영세한 기업 위주의 업종 구조로 되어 있어 업체들 사이에서

주도적 역할을 할 수 있는 리더가 없을 뿐만 아니라, 많은 단체가 개별 부문으로 세분화되어 있어 통합적 리더쉽을 발휘하기 어려운 구조를 지니고 있다.

② 낮은 수준의 업체간 네트워킹과 취약한 혁신역량

특히 고부가가치 창출의 핵심적 요소라 할 수 있는 디자인 부문에 있어서, 대부분의 업체가 단순모방에 그치고 있는 것으로 밝혀졌으며, 이외 새로운 생산기술 도입, 유통(마케팅)기법 개발 등의 기업혁신활동이 저조하거나 일회성에 그치고 있는 실정이다(정병순, 2005). 업체간의 네트워킹도 단순 거래관계로 고착되어, 높은 수준에서의 협력과 이를 통한 혁신이 발생할 수 있는 가능성이 차단되어 있다. 특히 최근 과열되고 있는 업체간 경쟁은 상호 호혜의 분위기 속에서 win-win 할 수 있는 협력관계의 모색을 가로막는 주요한 요인이 되고 있다.

③ 우수 인적자원 양성 및 수급체계의 부재

귀금속·보석산업의 경우, 우수한 인적자원의 확보와 활용이 기업 경쟁력의 핵심이다. 그러나 종로 귀금속·보석 클러스터에서는 아는 사람에 의한 소개나 친분관계에 의한 고용이 주를 이루고 있어 인력수급체계가 불안정하며 비공식적인 양상을 보이고 있다. 또한 대학·훈련기관·학원 등의 인력양성기관이 다수 존재함에도 대부분 현장과 괴리된 인력 양성이 이루어지고 있어 업계의 불만이 높아지고 있다(정병순, 2005).

④ 열악한 물리적 산업입지 환경

본래의 산업적 이미지에도 불구하고 종로 일대에는 귀금속·보석 이미지와 상충되는 다양한 부정적 환경요소들이 산재해 있다. 낙후된 건물, 부족한 주차공간, 간판 난립, 노숙자 및 노점상 등이 바로 그것인데, 파리, LA 등 해외 유수의 보석거리와는 비교 자체가 불가능한 상황이다. 또한 소규모 필지로의 분할, 저층 건물구조 등으로 인한 제조 공간의 부족은 제조활동의 효율화나 생산성 극대화를 어렵게 만들고 있다.

⑤ 클러스터를 둘러싼 제도적 환경이 갖는 불합리성

그간 귀금속·보석 제품이 사치·소비재이며 탈세의 사각지대라는 인식에 기초한 억제와 규제 중심의 제도적 접근이 이루어져 온 것이 사실이다. 다행히 최근 귀금속·보석 산업에 대한 위상과 인식이 변화하고는 있으나, 여전히 불합리한 세제가 개정되지 않는 등 실질적인 개선은 아직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 특히 최근에는 귀금속 세공과정에서의 폐수유출을 문제 삼아 동 산업을 공해산업으로 지정했다가 번복하는 웃지 못

할 일도 있었는데, 이처럼 클러스터를 둘러싼 제도적 환경이 오히려 발목을 잡는 상황이 지속된다면 클러스터의 발전은 요원하다 할 수 있겠다.

## Ⅳ. 질적 발전을 위한 기회요인과 클러스터를 둘러싼 여건 변화

전술(前述)한 많은 제약점이 있다하더라도, 종로 귀금속·보석 클러스터가 최근 질적 발전을 위한 전환점을 맞이하고 있는 것은 분명해 보인다. 여기에는 클러스터를 둘러싼 일련의 내외적 여건 변화가 큰 역할을 하고 있다. 우선 청계천 복원과 함께 도심 산업·공간구조에 일대 전환이 이뤄질 것으로 예상되는 가운데, 종로 귀금속·보석 클러스터가 변화의 전면에 부상하여 한 단계 도약할 수 있는 기회를 얻을 것으로 보인다. 이런 추측을 가능케 하는 것은 다음의 4가지 기회요인 및 여건변화와 깊은 관련을 맺고 있다.

① 청계천 복원과 재개발을 통한 도심 산업·공간 구조의 재편

동 클러스터는 서울 도심에서 자생적으로 성장하여 이미 상당한 규모적 경쟁력을 갖춘 데 이어, 도심이 지니는 입지적 여건을 효과적으로 활용·성장할 수 있는 산업내생적 특성을 지니고 있다. 이른바 대표적인 도심형 산업으로서, 청계천 복원사업 이후 진행될 서울 도심산업구조 재편과정에서 크게 주목받을 가능성이 높다.

② 시장의 패러다임 변화에 따른 혁신 자극

과거 예물·혼수제품 일변도였던 귀금속·보석시장이 삶의 질 향상과 소배패턴의 변화로 인해 패션주얼리 제품 중심으로 빠르게 재편되고 있다. 이 과정에서 디자인 능력의 중요성이 극대화되고, 새로운 주얼리 소비층으로 10대 후반과 20대의 젊은이들이 등장하면서 잠재적 소비계층의 확대가 이루어지고 있다. 제품시장의 변화가 생산구조를 포함한 전반적인 산업구조에 변화를 가져오는 주요한 요인 중 하나임을 감안했을 때, 귀금속·보석시장의 패러다임 변화는 전통적인 생산양식에서의 혁신, 새로운 유통(마케팅)기법 도입, 업체간 전략적 제휴와 협력에의 압력과 같은 혁신 자극을 유발하고, 이것이 다시 클러스터에 활력을 불어넣는 계기가 될 수 있다.

③ 산업간·지역간 연계 가능성과 시너지

종로 귀금속·보석 클러스터를 중심으로 연계를 통한 시너지 창출이 가능한 주변적

여건이 이미 조성되어 있다. 종로 일대의 풍부한 역사·문화·관광자원, 동대문 일대의 의류패션단지, 남대문·명동·이태원 일대의 대규모 상권 등이 바로 그것으로, 문화소비적 지향성을 공통분모로 하는 전략적 연계가 고려될 수 있다. 예컨대, 이들과 종로 귀금속·보석 클러스터를 연계한 관광코스의 개발, 연계상품 개발, 공동 마케팅 추진은 보다 넓은 범위에서의 집적경제를 발생시킬 수 있는 전략적 방안이 될 수 있다. 이는 새롭게 변화된 여건이라기보다는 '이미 존재하고 있던 가치에 대한 재발견과 이를 통한 기회의 창출' 이자, 종로·귀금속 클러스터의 질적 발전을 위한 주요한 전략적 대안이라 할 수 있다.

④ 클러스터 내부 구성원들의 인식 전환

최근 들어 클러스터 구성원들이 갖는 혁신에의 의지가 높아지고 있다. 과거 모래알 같이 흩어져 있던 개별 업체들이 문제의식과 목표를 공유하고, 클러스터 발전을 위한 전략과 자구책을 스스로 마련하려는 일련의 변화가 일고 있는 것이다. 예컨대 지난 2005년 가을에는 제1회 종로 귀금속·보석축제가 봉익동·묘동 일대에서 진행된 바 있는데, 그 성과는 별도로 하더라도, 지역 업체들이 주도적으로 기획, 추진한 사실상 최초의 노력이었다는 점에서 매우 고무적이라 할 수 있다. 이외에도 클러스터의 중장기적 발전을 선도할 종로 귀금속·보석발전위원회의 설립이 추진되고 있으며, 사안별로 업계와 지자체가 긴밀하게 공조하거나 대응하는 등 클러스터 발전을 위한 구성원들의 자발적인 노력이 뒤따르고 있다.

## Ⅴ. 혁신클러스터로의 탈바꿈을 위한 전략적 접근

종로 대로변을 중심으로 귀금속·보석거리가 형성된 것은 이미 오래전 일로서, 이것이 갖는 잠재력에 새삼 주목하게 된 것은 극히 최근의 일이다. 이러한 '재발견' 은, 이른바 클러스터 경제가 지역과 국가경제 성장을 위한 효과적인 대안으로 각광받기 시작한 시대적 흐름에 힘입은 바 크다. 그러나 가치의 재발견이 실체적 실천을 통해 산업과 공간상에서 구체화되기 위해서는, 잠재력을 가시적 성과로 이끌어내기 위한 전략적인 접근이 요구된다 할 수 있다. 여기서 말하는 가시적 성과란 종로 귀금속·보석 클러스터가 현재의 단순 집적지 양태에서 벗어나 혁신클러스터로 탈바꿈하는 것을 의미하며, 이러한 변화가 종로구, 나아가 서울시 경제에 새로운 활력을 불어넣을 수 있

을 것으로 기대할 수 있다.

그렇다면 종로 귀금속·보석 클러스터가 혁신클러스터로의 모습을 갖추기 위해서는 어떠한 일들이 필요할까? 앞서 제시한 현재적 여건, 제약요인, 기회요인이 바로 새로운 방향 설정의 길잡이가 된다. 우선, 클러스터가 갖는 내외적 환경에서의 혁신기반을 구축하는 과정이 우선적으로 요구된다. 이 과정은 두 차원으로 나누어 접근할 수 있는데, 클러스터 내부의 혁신성을 강화하는 일련의 노력과 외적으로는 이를 조정·지원할 물리·제도적 여건을 조성하는 일이다. 특히 후자의 경우, 해외 선진 사례에서 매우 중요하게 다뤄지는 것으로, 클러스터의 발전을 위한 일종의 혁신플랫폼으로서 그 의미와 역할이 매우 크다 할 수 있겠다.

구체적으로, 클러스터 내부의 혁신성을 강화하기 위해서는 첫째, 혁신을 주도할 수 있는 리더의 등장이 필요하다. 이는 몇 개의 업체가 공식적인 통합 절차를 거쳐 탄생한 대형업체, 공동의 디자인 및 브랜드 개발을 위해 잠정적으로 통합된 전략적 제휴의 형태일 수도 있으며, 현재 이미 진행 중인 비영리 협의단체의 구성일 수도 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그 형태가 아닌 역할로서, 업계 전반을 조정하고 선도하면서 클러스터에 지속적인 혁신자극을 불어넣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둘째, 새로운 디자인과 혁신에 대한 가치를 높일 수 있도록 인식을 전환할 필요가 있다. 상호 모방의 악순환을 끊고, 디자인에 새로운 바람을 일으키는 세대들이 진입하는 벤처생태계가 형성될 수 있도록 다양한 인센티브가 주어져야 할 것이다. 새로운 상품 개발과 마케팅을 위하여 산·학·연 협력화 사업을 적극 모색하는 것도 효과적인 대안이 될 수 있다. 셋째, 인력 수급체계를 공식화·효율화하고, 교육기관과의 긴밀한 연계를 통해 배출되는 인력의 현장성을 높여 보다 안정적인 노동력 시장을 구축하려는 노력이 있어야 한다. 이를 위해 관련 산·학간 연계교육 시스템을 강화하고, 인력수급을 안정화 할 수 있는 지역내 공식화된 취업연결망을 업체들의 자발적 참여로 활성화할 필요가 있다.

이와 함께, 클러스터 외부의 물리적·제도적 여건을 조성하기 위해서는 첫째, 지자체와의 공동 노력을 통해 거리 환경을 귀금속·보석 이미지에 부합하도록 시급히 재정비해야 한다. 둘째, 장소마케팅(place marketing) 전략을 적극 활용하여 지역 이미지를 대외적으로 제고하고, 이를 통해 업체간 상호 협력과 공동체적 정체성을 확립할 필요가 있다. 이런 의미에서 현재 진행되고 있는 귀금속·보석축제의 규모와 기간을 확대하고, 지역내 업체들의 참여를 유도하는 다양한 방안이 추가적으로 마련되어야 할

것으로 보인다. 셋째, 현재의 제조 공간 부족, 높은 임대료, 개별입지공장의 난립으로 발생하는 불경제와 제반의 입지문제에 적극 대처하기 위한 집단적 생산시설의 조성을 적극 고려할 필요가 있다. 넷째, 귀금속·보석 산업의 성장을 가로막고 있는 불합리한 제도에 대한 재검토 논의가 이루어져야 한다. 다만 제도 개선을 위한 재검토는 관련 주체별 다양한 의견이 존재할 수 있으므로 보다 세밀한 논의과정(공청회 및 토론회)을 거친 점진적 합리화가 전제되는 것이 적절할 것이다.

이상의 노력을 통해 클러스터의 내외적 혁신기반이 성숙단계에 이르면, 혹은 이르는 과정에서, 종로 귀금속·보석 클러스터를 중심으로 하는 지역간, 산업간 연계 전략을 고려해 볼 필요가 있다. 특히 동대문의 의류패션, 남대문·명동의 전통시장과 종로 귀금속·보석을 잇는 쇼핑관광루트의 공동 개발은 사업의 용이성과 효과 측면에서 가장 큰 가능성을 지닌 것으로 기대할 수 있다. 이외에도 종로일대에 산적한 문화관광자원과 종로 귀금속·보석을 연계하여 시너지를 높일 수 있는 다양한 사업화 방안이 고려될 필요가 있다. 이러한 연계는 종로 귀금속·보석 클러스터가 본래적 가치의 극대화와 더불어 지역경제의 중요한 한 축으로 자리매김하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며, 새롭게 재편되는 도심산업구조 상에서 그 위상과 가치를 재조명 받게 되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할 수 있다. 끝으로, '구슬도 꿰어야 보배'라는 말처럼, 높은 잠재력과 가능성으로 주목받고 있는 종로 귀금속·보석 클러스터가 단지 '재발견'에 그치지 않고 실질적인 발전을 달성하기 위해서는 클러스터 구성원과 공공부문에서의 지속적인 관심과 혁신에의 노력이 뒷받침 되어야 할 것이다.

**참고문헌**


- 산업자원부, 「국내 귀금속 보석 산업의 기초 자료」, 2005
- 유동일, 최계봉, 「한국 귀금속·보석시장의 문제점과 육성방향에 관한 연구」, 한국산업경제연구소 논문집 제12호, pp.103~125, 2001
- 이수연, 「종로 귀금속 및 보석 산업의 집적 특성에 관한 연구」, 경희대학교 지리학과 석사학위 논문, 2003
- 정병순, 「종로 귀금속·보석거리 활성화 방안」, 종로구청, 2005
- 주성재, 「서울 종로 귀금속 클러스터 - 단순 클러스터에서 혁신체계로 탈바꿈?」, 서울지역혁신연구회, 서울의 지역혁신체계 pp.89~104, 2004